

리우 올림픽 축구팀 살림꾼 '미드필더 3인방'

이창민·이찬동·박용우 활약 기대

4년 전 런던을 향해했던 흥망보호를 돌아보면 확실한 살림꾼들이 있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기성용(27·스완지 시티), 현 국가대표 중앙 미드필더 정우영(27·충청 리판), '독도 세리머니'로 화제를 부른 박종우(27·알 자지라) 등 소위 이름값 짙다는 미드필더들이다.

2016년 브라질 리우를 향하는 신태용 호에도 이들의 아성에 도전하는 3인의 중앙 미드필더가 있다. 이창민(22·제주), 이찬동(23·광주), 박용우(23·서울)다.

이들은 지난 5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올림픽축구대표팀 미디어데이에서 나란히 짝을 맞춰 취재진 인터뷰에 나섰다.

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세 선수 모두 K리그 클래식 소속 구단에서 주축 선수로 활약하며 정신없는 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찬동은 "아직까지 올림픽이 실감나지는 않는다. K리그 일정이 빽빽해 리그에 집중하고 있다"며 "브라질에 가면 실감이 날 것 같다.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출전할 수 있게 돼 영광이고 기쁘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태용호에서 공격 2선과 수비진 사이에서 살림꾼 역할을 맡는다. 경쟁자지만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다. 이창민은 공수 재능을 겸비한 미드필더다. 준수한 킥까지 갖춰 대표팀의 전담 킥러로 활약했다.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다. 각급별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쳐 지



왼쪽부터 박용우(23·서울), 이창민(22·제주), 이찬동(23·광주)이 5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올림픽축구대표팀 미디어데이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금의 자리까지 왔다. 특히 지난 1월 카타르에서 열린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는 유일하게 전 경기 선발로 출전했다.

그만큼 신태용 감독의 신뢰가 두텁다. 지난달 나이지리아와의 4개국 친선대회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전치 6주 관정을 받았지만, 올림픽 최종명단에 무난히 이름을 올렸다.

이찬동은 터프한 수비형 미드필더다.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로 정경이 난 선수다.

아직 23살에 불과하지만 이미 K리그에서 80경기를 소화했다. 2014년부터 3시즌째 광주FC 부동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 중이다. 지난해 3월 올림픽대표팀에 처음으로 승선했지만 빠져서는 안 될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역시 수비형 미드필더인 박용우는 왕성한 활동량에서 둘째가라면 서러다. 소속팀인 FC서울에서 중앙 수비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오가며 쟁쟁한 선수들과 호흡을 맞췄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11월 이찬동의 부상으로 대표팀에 처음 발탁됐다. 하지만 단번에 신 감독의 눈도장을 받아 이후 모든 대회에 출전했다.

이찬동은 살을 3kg 정도 뺐다. 올림픽 전까지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두 달 전부터 몸무게를 줄였다. 원래 84kg이었는데, 지금은 81kg 정도 나간다"며 "브라질에 가면 더운 환경에 적응해야하기에 지치고 힘들 것 같아서다. 원래 밥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아침에 계



란 두 개를 먹고 버렸다"고 말했다. 이창민은 체지방 잡기에 나섰다.

이창민은 "몸무게를 빼기보다는 체지방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부상으로 운동을 쉬고 있는데 체지방이 늘면 안되니 관리 중이다"며 "내가 머무는 제주도에선 싱싱한 먹거리가 많다.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우 역시 몸만들기에 한창이다. "체지방량을 줄이려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는 "운동이 끝나고도 조깅으로 유산소 운동을 한다. 부족한 웨이트 부분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비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바라보고 있는 곳은 일치했다. 당차게도 이들의 목표는 결승전이다.

/김민근기자



전북현대축구단 10일 포항전 팬 서비스 실시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오는 10일(일) 포항전에 팬들을 위한 특별한 팬 서비스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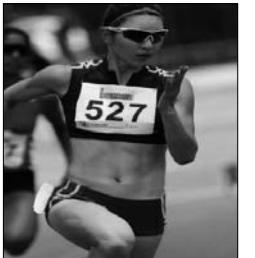
팬 서비스의 주인공은 올 해 전북으로 이적해 팀내 '중원 시령관'으로 전북 공격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김보경이다. 지난 4월 10일 포항 원정경기에서 K리그 데뷔전을 치렀던 김보경은 다가오는 이번 포항과의 홈경기에서 팬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한다.

먼저 이 날 입장하는 관중 10,000명에게 김보경 손목 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이 손목 밴드는 전북의 팀 컬러인 밝은 녹색에 김보경 선수와 전북현대 영문명이 각인 되어 있다. 또한 김보경 데이를 맞아 10일 경기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입장 티켓이 제작된다. 홈경기 티켓에 김보경 선수를 디자인한 티켓이 사용 된다. 선수를 디자인한 스페셜 티켓은 지난 2014년 최은성 코치의 선수 은퇴경기 시 사용된 이후, 두 번째이다. 하프타임에는 댄스팀을 통해 팬들에게 김보경 친필 사인볼을 전달 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전북개발공사 여자육상단 전국대회 1,600m계주 우승·400m계주 은메달

전북개발공사 여자육상단이 경상북도 김천에서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대회 겸 제44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1,600m계주 우승 및 400m계주에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또한 전북개발공사 김지은 선수(사천)는 이번 대회와 함께 병행 개최되고 있는 2016년 한중일 친선 육상경기대회에도 참가, 1,600m계주에 한국 대표선수로 출전해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한편, 대한육상연맹은 오는 9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2016 오사카 육상선수권대회에 지난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리스트인 김지은 선수와 김우진 감독을 국가대표로 초청하는 등 전북개발공사 여자육상단이 실업육상의 신봉 강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신광영기자

익산시청 육상선수단 전국대회 금 3·동 1개 획득

익산시청 육상선수단은 7월1일~5일까지 경북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4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미녀새 최예은(23) 선수는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3미터 80으로 금메달 전성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여자 중거리 신소망(24) 선수는 1,500미터에서 4분 29초로 금메달 여자 원반던지기 조혜달(31) 선수는 50미터 8로 금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여자 창던지기 이혜림(28) 선수는 47미터로 동메달을 추가하며 익산시청 육상선수단은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로 실업 최강팀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다.

/익산=장영희기자

강정호 성폭행 혐의 조사 착수

입증될 경우 사법처리 전에 메이저리그 사무국 징계 먼저 나올것

23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미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혐의가 입증될 경우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미국 일리노이주 지역지인 '시카고 트리뷴'은 "강정호가 지난달 시카고 컵스와 경기 위해 시카고에 왔을 때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강정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23세 여성은 매그니피센트 마일

지역에 있는 호텔에서 만난 강정호가 주는 술을 먹고 15~20분 동안 정신을 잃었으며 그 사이 강정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되면 강정호는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현지 언론들은 사법 처리가 되기 전에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의 징계가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MLB 사무국과 메이저리그선수노조(MLBPA)는 지난해 8월22일 '가정폭력·성폭력·이동학대 방지 협약을 발표하고

해당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을 엄단할 의지를 보여줬다. 이 협약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을 일으킨 선수들에 대해 커미셔너 권한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다.

가정폭력·성폭력·이동학대 방지 협약을 발표한 이후 MLB 사무국은 사건 관련 선수가 사법처리 되기 전 징계를 내렸다.

해당 협약이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관련 사건을 일으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아롤디스 체프만(뉴욕 양키스)이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형사 처벌 유무와 상관없이 체프만에게 30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11월초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에 체포됐던 호세 레이스(콜로라도 로키스)는 아내가 범정 증언을 거부

하면서 검찰이 고소를 취하해 사법 처벌은 면했다.

그러나 MLB 사무국은 레이스에게 52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콜로라도는 지난달 중순 레이스를 방출했다.

애들랜타 브레이브스의 외야수 헨터 울리베라는 지난 4월 중순 원정경기를 위해 워싱턴을 찾았다고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울리베라도 사법 처리와는 별도로 지난 5월 말 MLB 사무국으로부터 82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강정호도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될 경우 사법 처벌과 관계없이 MLB 사무국으로부터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구단과 MLB 사무국은 사건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성로 1482 / 063) 320-0114